



미래 포장산업의 전문경영인 꿈꾸는 신세대 포장인

(주) 원지산업 서대원 대리

포장이라는 큰 범주 속에 연포장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포장의 대부분이 그것이고 그외에도 연포장이라 규정된 범위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연포장 업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이유로 그곳에 젊은 열기를 쏟아 부으며 장기근속하는 이는

그리 흔하지 않은 형편이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원지산업 품질관리과 서대원 과장대리는 연포장 업계에서 가까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있는 믿음직한 신세대 포장인이다.

‘담그는 마음, 담은 마음’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 3단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지산업을 방문하는 날은 봄비가 축축히 공단내를 뿌려 주고 있었다. 공장쪽에서 비를 맞으며 뛰어난 서대원 대리는 “반갑습니다”며 먼저 악수를 청한다. 누가봐도 믿음직한

몸집에 금테 안경 뒤로 보이는 가느다란 눈은 누구에게나 금세 친근감을 느끼게 할 것 같았다.

“원지산업은 그라비아 인쇄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을 보면 기획실, 총무부, 영업부, 기술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생산관리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정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업무는 주로 생산 각 공정 제반관리 업무, 신제품 체크 리스트 작성 및 진행, 제품 사양서 관리, 각 공정별 작업 표준 작성 및 추진업무 등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다.

서대원은 1985년 4월 1일 입사하여 올해로 8년째 근속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경북산업대학 산업공학과 재학시절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원지산업 한용교 사장이 당시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입사와 동시에 품질관리 부서가 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입사 당시 성격은 내성적이었으나 사회에서는 사람이 혼자 문을 닫아 버리면 도움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다는 판단 아래 성격을 개조하려고 노력했으며 원래 모가 나지 않은 성격이라 적이 없고,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특히 저희 일은 의학으로 말하면 ‘예방의학’입니다. 사전에 현장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불량과 직결되니 만큼 그들과의 친목이 중요시 되고 있죠. 그 덕분에 술자리를 자주 갖는 편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주량은 소

주 2병이라고.

운동은 뭐든지 다 좋아하며 고등학교 3학년때 유도 공인 2단이었다는 서대리는 지금은 테니스와 직원들과 축구를 즐기는 것이 큰 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연포장 기술 낙후성에 대해 안타깝다는 서대리는 연포장 교육의 노하우(Know-how)가 개발되어야 하며, 연포장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신입사원에게도 자신이 모아온 자료나, 현장 경험 위주로 가르치는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성 있는 교육서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서대리는 부족하나마 직접 전문서적을 만들어 보고자 여러가지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덧붙여서 우리나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연포장 교육센터' 개설을 제안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포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장은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과 포장업체 종사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시 되며 서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기업의 포장설계사와 포장업체간의 지속적인 협의만이 바람직한 포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리는 입사후 8년동안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해준 좋은 경영인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즐거웠고 회사 홍보용 VTR 제작, 카탈로그, Show-room 제작을 주도해와서인지 회사에 대해 더욱 애착을 느낀다며 90년도에는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

을 회사에 다시 환원해야 할 때입니다. 일하는 종업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으로 8년 동안 지각, 조퇴, 결근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항상 건전한 사고방식, 건전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며 내 개인의 일도 때론 중요하지만 먼저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원지산업에는 많이 있습니다”라며 멋지게 웃는다.

몇년간 일본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서대리는 기회가 된다면 현대화 시대에 발맞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포장 분야에서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심도 있다고 한다.

입사 당시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어느 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나이가 지긋이 들고 경험도 풍부해질 때쯤 남한테 월급을 받기만 하기 보다는 주기도 하는 입장이 되고 싶다고 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힌다. 기자가 일 이외의 포부를 다시 묻자, “남자는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남자에게 그외의 성취감이란 또 있을 수 있을까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한다.

이제 막 포장업체에 입문한 후배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사람과의 충분한 접촉으로 기초부터 확실히 배우고 승진욕만 가지기 보다는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분명 회사도 능력을

● 서대원 과장대리는 공정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포장 업계의 자료부족을 인식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 모아온 자료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자료 서적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하다.

● 인정해 줄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일방적으로 일본이나 외국것을 배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제 경험에 의한 글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시리즈 식으로 체계를 잡는 것도 큰 자료의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며 마지막으로 포장정보에 대한 바람을 토로하기도.

서대원 대리는 현재 회사에서 20분 거리인 하안동에 살고 있으며 부인과 딸, 아들 둘이 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활기찰 수 밖에 없었다. 서대원 대리의 의지와 포부가 너무도 젊음이답게 강했고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는 포장인을 만났다는 기쁨에 흐뭇하기만 했다.

어느새 서대리의 얼굴에 땀이 맺혔으나 처음 인터뷰임에도 시종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그의 얼굴은 원지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돌아가는 시간에도 여전히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지만 정문까지 배웅나온 서대리의 모습에서 다시금 연포장업계의 발전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해본다. <이선하 기자> ▣